

보도 일시	2021. 10. 14.(목) 09:00	배포 일시	2021. 10. 14.(목) 09:00
담당 부서	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	책임자	과장 윤태욱 (044-203-2811)
		담당자	사무관 장새미 (044-203-2816)

2022년도 열린관광지 20개소 선정

- 인천 개항장, 진안 마이산도립공원 등 선정 -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황희, 이하 문체부)는 한국관광공사(사장 안영배, 이하 관광공사)와 함께 ‘2022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’ 지원 대상으로 8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20개소를 선정했다.

‘열린관광지 조성 사업’은 장애인, 고령자, 영유아 동반 가족, 임산부 등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,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, 온·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,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.

특히 이번 ‘2022년 열린관광지’ 공모는 관광지 개·보수에 드는 시간과 지자체의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해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겼다. 15개의 지방자치단체(42개 관광지점)가 공모에 지원한 가운데,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관광지는 다음과 같다.

<2022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>

연번	지자체	관광지점(총 20개소)
1	인천광역시	개항장 역사문화공원, 월미문화의거리, 연안부두해양광장, 하나개해수욕장
2	진안군	마이산도립공원남부, 마이산도립공원북부
3	청주시	청주동물원, 명암유원지
4	전주시	전주동물원, 전주남부시장, 덕진공원
5	예산군	예당관광지, 대흥슬로시티, 봉수산자연휴양림장
6	남원시	광한루, 남원항공우주천문대
7	부안군	변산해수욕장, 모항해수욕장
8	제천시	청풍호반케이볼카, 청풍호유람선

선정된 관광지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상담(컨설팅)을 거쳐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된 후 주요 관광시설, 보행로, 이용·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개·보수하고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. 아울러 열린 관광지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국내 여행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준공된 열린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‘나눔여행’을 진행한다. 관광지 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장애 관광에 대한 교육 등도 함께 지원받는다.

무장애 관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통합 누리집도 준비 중

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“전국 주요 관광지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와 휠체어 대여 여부 등 무장애 관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누리집(웹페이지)도 구축하고 있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뿐 아니라 제반 환경까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, 민간과 함께 협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